

방통위, '협찬 고지 의무화' 추진

건강정보 프로그램 등에 대한 협찬고지 관련 법령 개정·모니터링 강화
4개 종편과 7개 TV홈쇼핑 편성 점검 결과 26개 프로그램 총 114회 연계편성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편성채널의 건강정보 프로그램과 TV홈쇼핑 방송이 동일 상품을 인접 시간대에 편성하는 연계편성이 시청자 피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협찬고지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러한 연계편성은 종편 및 TV홈쇼핑사의 강요가 아닌 TV홈쇼핑에 불건을 공급하는 납품업자들이 매출 증대를 목적으로 자체 기획 또는 행사를 통해 진행한다. 현행법에 연계편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시청자들이 해당 방송프로그램이 협찬을 받아 제작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협찬주명 고지를 의무화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통위가 4개 종편과 7개 TV홈쇼핑의 지난해 9월과 11월 방송에 대한 편성현황 등을 점검한 결과, 해당 기간 동안 종편 4개사의 26개 프로그램에서 110회 방송한 내용이 7개 TV홈쇼핑의 상품판매방송에서 총 114회 연계편성된 것을 확인했다.

방통위는 또 종편과 TV홈쇼핑의 연계편성행위와 관련해 미디어렙(방송광고 판매 대행사)이 프로그램 기획, 제작, 편성에 영향을 미치는 등 미디어렙법 위반 정황이 있을 경우에는 엄중 조사를 제재 조치할 계획이다.

연계편성으로 인한 시청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해 지상파·종편의 건강정보 프로그램의 방송심의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이다.

/뉴시스

문화생활에 소외됐던 군민의 갈증 해소시킨다

진안군 돼지문화체험관 본격 운영

진안군 돼지문화체험관이 지난달 31일 북부미산 마이몬테마파크 안에서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

이날 개관식에는 지역의 예술가와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진안공간사랑 프로젝트'의 축하 공연이 펼쳐져 돼지문화체험관 시설을 관람하기 위해 모인 주민과 청소년 150여 명에게 특

별한 즐거움을 선사했다.

돼지문화체험관은 진안의 특산품인 홍삼과 흑돼지를 활용한 오감자극 음식체험과 돼지를 소재로 한 목공·공예 체험이 가능하며 어린이들을 위한 실내 놀이카페가 있다. 또한 늑대가 들려주는 '야기돼지 3형제 이야기' 뮤지컬 공연이 상시 운영될 예정이다.

새로 체험관 운영을 맡은 작업장학교 '살이'는 문화·예술인들이 2010년에 설립한 비영리 민간단체로, 장애인가족연대협동조합과 진안

군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부모회와 함께 운영한다.

돼지문화체험관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7시까지 운영하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하며 체험관 예약 및 이용문의는 전화(063-433-8214)를 통해 가능하다.

이규홍 돼지문화체험관 대표는 "돼지문화체험관 개관으로 그동안 문화생활에서 소외됐던 군민들의 갈증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진안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다채로운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돼지문화체험관이 지난달 31일 북부미산 마이몬테마파크 안에서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

한국방송협회 새 회장, 박정훈 SBS 사장 취임

박정훈(57) SBS 사장이 제23대 한국방송협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8월1일부터 2020년 7월31일까지 2년이다.

박 신임 회장은 "아날로그 시대에 만들어진

방송은 유료방송과 글로벌 미디어와의 경쟁이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이라며 "구 시대의 낡고 불합리한 매체 간 차별 규제가 개선되도록 국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

란다"고 청했다.

박 회장은 고려대 영문과를 나와 1991년 SBS PD로 입사했다.

편성실장과 제작본부장, 드라마본부장 등을 지냈다. '그것이 알고싶다', '생명의 기록', '환경의 역습' 등을 연출했고 한국방송대상, 백상예술대상 등을 받았다.

/뉴시스

'5·18언론상 수상작'

취재·사진·뉴미디어 4편 선정

5·18기념재단과 광주·전남기자협회는 1일 '2018년 5·18언론상 수상작'으로 취재보도 2편과 사진보도 1편, 뉴미디어 1편, 공로상 1명을 선정·발표했다.

취재보도 부문에는 ▲한겨레신문(정대하·안관옥·남은주) '5·18 계엄군 여성 성폭행 38년만의 첫 보도' 관련 기사 ▲SBS '그것이 알고 싶다(장경주·이근별)' '잔혹한 충성' 2부작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사진보도 부문에는 ▲광주일보(최현배) '웃고 있는 박준병과 소준열'이 수상작으로 뽑혔다.

뉴미디어 부문에는 ▲취피쳐스(국범근) '이것만 보면 5·18 민주화운동 한

방에 이해됨', 공로상에는 나경택(1980년 당시 전남매일신문·전 연합뉴스 광주전남지사장) 사진기자를 선정했다.

한겨레신문은 '국가 권력에 의한 성폭행'이라는 새로운 화두를 제시함으로써 5·18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새로운 국면을 이룩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5·18의 진실과 흔적을 심층적으로 재조명했고, 프로그램의 완성도 측면에서도 우수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시상식은 오는 22일 오후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열린다.

/뉴시스



국산 창작 뮤지컬 '마이 버킷 리스트'가 중국 진출을 확정했다. 10월 19~27일 699석 규모의 중국상하이 상극장에서 공연한다.

뮤지컬 '마이 버킷 리스트' 중국 간다... 벌써 세번째

국산 창작 뮤지컬 '마이 버킷 리스트'가 중국 진출을 확정했다. 10월 19~27일 699석 규모의 중국상하이 상극장에서 공연한다.

현지 제작사 SAIC·상하이문화광장과 작년 이어 올해도 계약, 공연이 성사됐다. '마이 버킷 리스트'는 작년 상하이 백육란 극장에서 현지 초연했고, 베이징 다원극장에서 투어 공연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상하이대극원 중국장에서 재연했다.

이번 '마이 버킷 리스트' 중국 라이선스 공연 세 번째 프로젝트에는 초·재연 창작진과 배우들이 합류한다. SAIC·상하이문화광장의 예술감독 페이위안홍, 연출가 하녜과 마다가 가세한다. 배우 장즈, 위시오린 등이 나온다.

'마이 버킷 리스트'를 제작한 라이브의 강병원 대표는 "라이선스 공연은 각 나라의 정서에 맞게 현지화 작업에 중점을 두는데 '마이 버킷 리스트' 중국 라이선스로 한국 관객들이 느낀 감동을 고스란히 느꼈으면 한다"고 밝혔다.

'마이 버킷 리스트'는 2016년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최한 중국 상하이 K뮤지컬 로드쇼를 통해 SAIC·상하이문화광장과 라이선스 계약을 했다. 미스터 차이나 필름과 계약, 영화화 작업 중이다. 2014년 한국에서 초연했다. 감성로커 양아치 '강구'와 외유내강 시한부 '해기', 두 소년의 좌충우돌 버킷 리스트 수 행기다.

/뉴시스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ivs.or.kr *전자우편 : jivs@hanmail.net